

“무재해 10배수 달성의 힘은 마인드”

-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 -

지난달 4일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가 무재해 10배수 사업소로 인증을 받았다. 무재해 10배수 인증은 국내 자동차 A/S 사업소 중 7개 정비사업소만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10배수 무재해 인증을 받은 곳은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가 유일할 정도다. 정비업무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1998년부터 작년 12월 13일까지 10년여간 무재해 기록을 달성한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를 찾아가 봤다.

취재 | 임동희 기자

안전의 밑바탕은 직원들의 열정

이곳의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직원들의 열정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는 지금까지 무재해 10배수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나원석 대리는 “매일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직원들의 표정에서 안전에 대한 의지를 쉽게 볼 수 있다.”라며 “필드에 접은 연령대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애사심과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전사업소만의 독특한 안전문화 정착

현재 자동차 A/S업계 중에서는 7개 업체가 10배수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이 중 르노삼성자동차는 대전을 포함 대구, 광주 등 총 5개 직영사업소가 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르노삼성만의 관리기법이 무재해 기록 달성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르노삼성에서는 모든 직영사업소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교육일정을 짜가지고 연도별, 연차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화가 직원들에게 안전과 기술 등에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이 아무리 관리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무재해 10배수 달성에는 무엇보다 사업소와 직원들의 마인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취재를 하는 동안 대전직영점에서 안전관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지 느낄 수 있었다.



대전사업소의 무재해는 꾸준한 안전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오익근 사업소장은 월초 정례회의에서 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하루에 서너번, 오전에만도 한두번 현장을 돌면서 안전관련 부분을 세심히 살핀다.

아울러 각 파트장들은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분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실제 업무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해 직원들이 수시로 위험요인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직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를 비롯해 삼성화재, 리더스방재, 환경보존협회 등 여러 전문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적된 모든 것은 중장기 사항으로 구분하여 빈틈없이 개선조치 하는 것, 여기에 고 비용사항일지라도 안전 확보가 우선 고려되는 것도 대전사업소

만의 안전문화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도 무재해를 표방하는 대전사업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같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아래부터 시작하는 안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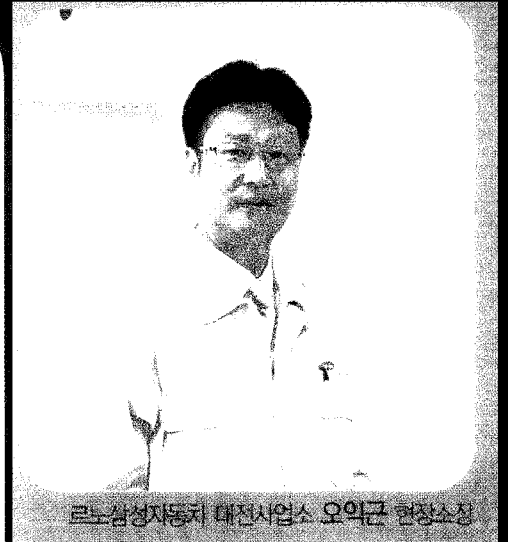
사업소 측은 10배수 달성 기록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사업소 측에서는 직원들의 고충과 위험요인을 필드에서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파트장급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사측은 서포트 역할에 치중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소측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 교육부분이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집합교육보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실습위주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측에서는 반기 1회 정도 안전 및 소방 등의 안전관련 훈련을 예정해놓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는 앞으로 20~30배 무재해 달성의 기록을 노리고 있다. 같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안전문화가 앞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안전의식의 기틀이 되면서, 이 목표도 불가능하지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대전사업소

르노삼성 대전사업소는 1998년도 5월에 삼성자동차 대전충남북 지역점으로 출발했다. 그 후 2000년 9월 1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는 총 36명이다. 이들은 각기 프론트, 일반파트, 판금도장 파트로 나뉘서 근무하고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사업소 오익근 현장소장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은 나 개인은 물론 가정이 포함된 행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재해 10배수 달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히 잘해나간다면 20배는 물론 30배 무재해달성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측의 안전관련 정책을 잘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마음깊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발견했다면 눈치보지 말고 수시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험요소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